

불황의 시대에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

경주 최부잣집이 들려주는

300년 부의 비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가진 자의 바른 마음가짐, 경주 최부잣집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배우세요~

9대 진사와 12대 만석꾼을 낸 남다른 가문으로

벼슬과 재물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면서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 최부자.

그의 바른, ‘참 부자’ 철학을 배운다.



명부(名富)의 격조와 품격을 갖춘 교동 최씨 고택

경주시 교동 69번지 **중요민속자료 제27호**

원래 경주시 내남면 '계무덤'이란 곳에서 살던 최부자가 이 곳으로 옮겨 온 것은 최언경(1743~1804)대로 이 터는 신라의 요석공주가 살던 요석궁이 자리했다고 전해지며, 경주 향교와 고분, 재매정 등 주위가 신라 신화와 역사의 자취로 둘러싸여 있다.

건축 당시, 향교 유림들의 반대가 심해 그 뜻을 수용하여 향교보다 2계단 낮게 터를 깎아 내고 지었다는 이야기에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했던 최부자집의 가풍을 읽을 수 있다.

원래는 99칸이었으나 사랑채가 화재로 불타 최근에 큰 사랑채는 복원되었고 작은 사랑채는 주춧돌만 남아 있다. 사당은 큰 사랑채와 서당으로 이용된 작은 사랑채 뒤편에 배치되어 장엄한 공간적 깊이를 느끼게 한다.

조선 시대 양반집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집에서 12대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켰고, 학문에도 힘써 9명의 진사를 배출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존경받는 부자, 최부자 가문

최부자집 사람들의 실천의지는 중용(中庸)과 의로움이다.
“치우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욕심 내지 않는다.
어느 것이든 완벽한 한 가치는 없으며, 좌우에 치우침이 없이 의롭게 산다”
이런 중용의 덕을 뼈에 심기 위함인지 아호를 보면,
마지막 최부자 최준의 증조부 최세린의 호는 ‘대우(大愚:크게 어리석음)’였으며,
부친 최현식의 호는 ‘둔차(鈍次:재주가 둔해 으뜸가지 못함)’였다.



» 마지막 최부자로 불리는 최준씨 형제
(왼쪽은 동생 최윤)

12대 만석지기 부(富)의 시조는

정무공 최진립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우고 결국 전사하여 병조판서에 추증된 나라의 충신이었다. 청백리로 낙선될 만큼 지극히 검소하여 부를 과시하지 않고 노복들이 전투에 함께 참여하여 그와 생사를 같이 한 일화에서 보듯 우러러 볼만한 인격을 지니고 있어 300년 부의 토대를 닦았다.

시조가 남긴 훌륭한 인품과 가풍을 바탕으로

후손들은 가문의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치적을 쌓아간다. 관개시설 확보로 이양법을 도입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마름을 없앤 직접경영과 병작제 등 지속적인 경영의 혁신을 통해 부를 창출하였고 육연과 육훈으로 상징되는 조상의 유훈을 지키려는 무한한 노력을 통해 300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이어가는 존경받는 ‘명부(名富)’를 이루었다.

최부자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완성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쁘게 버린 마지막 최부자 최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하에서는 백산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임시정부에 주석 김구에게 군자금을 보냈으며, 광복 후에는 인재양성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대구대학(현 영남대학)과 계림학숙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최부자집은 300년 부를 포기함으로써 영원히 대한민국의 ‘참 부자’의 표본이 된 것이다.

최부잣집에 와 보니...

월성을 끼고 흐르는 남천 옆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은 이 넓고 큰 집은 1700년쯤에 건립됐다고 한다. 수많은 손님들이 머물렀던 사랑채, 흥년이면 열렸던 곳간이며, 넓은 집안 구석구석 빛바랜 곳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최부자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작은 사랑채터

불에 탄 작은 사랑채터는 주춧돌만 흩어져 있다. 이 주춧돌은 집을 지을 당시 반월성에 있던 왕궁기둥을 받치던 돌들을 옮겨 놓은 것으로 최부잣집의 명성과 품격을 드러낸다.



shotul-daemun

shotul-daemun 형식을 취했으나 화려하지 않으며 수수하고 평범한 최부잣집 daemun. 일반적인 shotul-daemun보다 낮게 지었다고 한다.



안채

'ㄱ'자 형태로 지어진 안채는 원래 8채 99칸 규모였으나 현재는 3채만 남아있다. 자좌 오향의 정남향 동사택이다. 집안의 주인마님을 비롯한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 가지런한 장독들이 눈에 띈다.



사랑채

지난 2006년 복원한 큰 사랑채. 구한말 의병장 신돌석, 면암 최익현, 스웨덴의 구스타프 국왕(당시 왕세자), 의친왕 이강공 등 당대의 기라성 같은 손님들이 머물렀다.



곳간

최부자집에서 눈여겨 볼 창고. 현존하는 목재곳간 중 가장 크고 오래되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전통 한옥으로 부를 짐작할 수 있는 건물이다. 쌀 700~800석을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문간채

최부자집의 개방적인 기풍을 대변하는 듯하다.



300년 부(富)의 숨은 비결 -

자신을 지키는 육연(六然)과 집안을 다스리는 육훈(六訓)으로

부는 물처럼 흘러야 냄새를 풍기지 않으므로 부를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고

부가 오래 머물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부불삼대(富不三代)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있듯이

부와 권력은 오래도록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

최부잣집은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라는 노(老)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육연과 육훈을 가슴에 새겨 ‘배푸는 삶’을 실천했다.

육 연(六然)

- 一. 자처초연(自處超然) 스스로 초연(세속을 초월하는 경지)하게 지내고
- 一. 대인애연(對人愛然) 남에게는 온화(누구에게나 평등한 마음가짐)하게 대하여
- 一. 무사징연(無事澄然) 일이 없을 때 마음을 맑게(잡념을 자제) 가지고
- 一. 유사감연(有事敢然) 일을 당해서는 용감(임전무퇴를 의미)하게 대처하며
- 一. 득의담연(得意淡然) 성공했을 때는 담담(경거망동을 삼가란 의미)하게 행동하고
- 一. 실의태연(失意泰然) 실의(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교훈을 의미)에 빠졌을 때는 태연히 행동하라

육훈이 이야기하는 부의 경영 노하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높은 벼슬에 오름으로써 당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학문수행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 최소한의 사회 지위와 양반신분을 지키도록 하였다.

오늘날 부를 기반으로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으로 부를 늘려가는 정경유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습으로써 새로운 수로체계 등 생산성을 높이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혁신경영을 실천하였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상한으로 정한 만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작료를 낮추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더이상의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

생산이 늘면 열심히 일한 소작인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Win-Win의 노사경영, 보다 큰 이익을 올리는 독과점의 지위를 얻기 위한 몸집 부풀리기보다 적절한 규모, 건전한 경쟁에 기반한 상생경영에 힘썼다.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기근이 들면 가난한 경작농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흰 죽 한끼의 험 값에 땅을 내놓는 '흰죽 논'과 같은 토지를 사들이지 못하게 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의 부의 증식에 이용하지 않는 윤리경영의 정도를 지켰고, 이를 통해 '좋은 기업, 착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굳혔다.

'고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는데 그 비용이 연 1천석에 달하였다고 한다.

교통 통신이 발전하지 못했던 그 시절, 지나는 객은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고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메신저였으며, 이들을 통한 새로운 정보습득에 비용을 아끼지 않은 지식정보경영이 숨겨져 있다.

'주변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흉년이 들면 일년 소작수입 가운데 일천석을 사방백리(동: 동해안, 서: 영천, 남: 울산, 북: 포항)의 빈민구제에 사용했다.

단순한 이윤추구에서 벗어나 사회공헌을 경영이념으로 삼은 사회적 기업이며, 빌게이츠가 주창한 창조적 자본주의의 본보기이다.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최부갓집 며느리들은 삼베옷을 입어야 했는데, 기우고 또 기워 입어 옷을 살아 세탁할 때 새 말의 물이 들어가는 솥에 치마 하나만 넣어도 가득 찼다고 한다.

최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CEO(최고 경영인)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제시한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을 생활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경영의 토대가 되었다.

경주 최부갓



최씨의 흔적을 찾아...



* 충의당 (忠義堂)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99호인 충의당은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가옥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무신 1대 잠와(潛窩) 최진립(崔震立)이 살던 집이다. 이전에는 당호가 흠흠당이었으나, 1760년경 중수한 뒤 충의당(忠義堂)이라 하였다.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흠처마 팔작지붕을 하고 있으며, 사랑채에 해당한다. 뒤편에는 정침과 고방채가 있으며, 오른쪽에 신위를 모신 묘우가 있다.



* 용산서원 (龍山書院)

경상북도 기념물 제88호인 용산서원은 무신으로서 드물게 정무공 최진립(崔震立)을 향사하기 위해 1699년(숙종 25) 경주부윤 이형상이 지방 유림과 함께 건립했다. 1701년(숙종 27) 강당 및 남북재를 세워 강당을 민고당, 양 협실을 흥인재·명익재라 하고, 남재를 호덕재, 북재를 유예재, 문을 식감문이라 했다. 1711년(숙종 37) 권대규 등의 진정소에 의해 송렬사우리는 묘액을 내렸는데, 이때 경주의 유림들이 원호를 용산서원이라 했다. 묘액의 글씨는 이익의 형 이서가 썼다. 이후 1870년(고종 7) 금령에 의해 철폐되었다가 1924년에 중건, 다시 모셔졌다.

구경 오시는 길



주변을 둘러보니...



* 사마소

사마소는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그 지방의 생원과 진사들이 조직하여 유학을 가르치거나 정치를 토론하던 곳이다. 이 건물의 창건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진 것을 영조 17년(1741)에 다시 세워 풍영정이라 하였으며, 건물 측면의 사마소란 현판은 영조 38년(1762) 당시의 부윤 홍양한이 써서 건 것이다. 함께 있는 병축헌은 순조 32년(1832) 생원 최기영이 세운 것이다. 원래 이 건물들은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300m 거리에 있는 신라시대 월정교터의 북쪽 교대 위에 세워져 있던 것을 1980년에 보수하고, 1984년 경주 월성사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건물내에는 건물을 중수한 내용을 새긴 현판들이 걸려있어 그 내력을 알려주고 있다.



* 경주향교

향교는 훌륭한 유학자를 제사하고 지방민의 유학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나라에서 지은 국가 교육기관이다. 이 자리는 원래 신라 신문왕 2년(682)에 처음 세워진 국학이 있던 곳이다. 경주 향교가 처음 지어진 시기는 잘 알 수 없으나, 조선 성종 23년(1492)에 서울의 성균관을 본 떠 고쳐지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불탄 뒤 선조 33년(1600)에 대성전과 전사청을 다시 지었다. 이어서 선조 37년(1604)에 동무와 서무를 짓고, 광해군 6년(1614)에 명륜당과 동재·서재를 더 지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건물은 전형적인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구조를 보이고 있다. 대성전과 동무·서무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받드는 곳이다. 강당인 명륜당과 동재·서재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기거하는 시설이다. 대성전은 앞이 3칸이고 옆이 3칸인 맞배지붕으로 위엄이 있다. 명륜당은 앞면 5칸에 옆면 3칸인 겹처마 맞배집이다.



* 재매정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校洞)에 있는, 김유신(金庾信)이 살았다는 집의 유허(遺墟). 사적 제246호. 1.5m가량의 사각형 우물로, 우물가에는 1872년에 세워진 비각이 있다. 644년(선덕여왕 13)에 소판(蘇判)이 된 김유신은 연달아 여러 차례 백제와의 싸움에 출정했는데, 싸움터에서 돌아 오자마자 가족을 만날 틈도 없이 곧장 다른 싸움터로 보내지는 일이 거듭되었다. 645년 3월 에도 김유신은 싸움터에서 귀환하자마자 다시 서쪽 국경으로 출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집 문 앞을 그냥 지나가게 되었는데, 50걸음쯤 가다가 멈춰서 자기 집 우물에서 물을 떠오라고 시켜 마셨다. 그러고는 "우리집 물맛은 옛날 그대로구나"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길을 갔다. 이렇게 가족과의 이별을 한탄하지 않고 의연하게 싸움터로 나가는 김유신의 태도는 이를 지켜보던 군사들에게 귀감이 되어 그들을 싸움터로 이끌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
경주 최부잣집이 들려주는
300년 부의 비밀



흥년이 들면 곳간 열어 굶는 이웃 없게 하고
부자가 벼슬까지 높아서 안 된다고 했다.
넉넉하고 지체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바르게 실천한 경주 최부잣집이다.